금주의 법구-〈법구경〉
항상 새벽처럼 깨어 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79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2월 14일) 2022년 3월 16일 수요일



스님도 소중한 한표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3월 4일 종로구 가회동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하며 투표를 독려했다. 스님은 사전투표 후 "선거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앞으로 나라를 이끌 대통령을 잘 선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선 2월 28일에는 종교지도자협의회(회장 원행)를 통해 공명정대한 선거를 당부했다. **사진제공=조계종**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통합 주력" 일성

3월 9일 대통령 선거서 박빙 끝 확정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우리나라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를 앞두고 선대위 산하 문화유산진흥특별위원회를 통해 전통문화 보존정책 강화 및 국립공원제도 개선, 공공기관 종교편향 근절을 위한 '종교평화위원회' 신설 등 공약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불교계 관심이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확정했다. 3월 10일 새벽 5시까지 이어진 개표결과 윤석열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초박빙 경쟁 끝에 48.56%(1639만여 표) 득표율로, 47.83%(1614만여 표)를 득한 이재명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양후보간 득표차는 24만표로 역대 최소치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중요성 등 많은 것을 배웠다"며 "이제부터 모두 다함께 힘을 모아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합에 주력하겠다"고 첫 일성을 밝혔다. 이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 이재명 후보의 양강대결 구도 속에서 불심의 향방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가톨릭 편향과 전통문화 보존예산 삭감, 정청래 의원의 문화재관람료 폄훼발언 등으로 불교계와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양당 모두 전통문화 정책 개선을 비롯한 숙원과제 해결과 종교편향 개선안 등 불교계 민심을 염두에 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당선자는 관련 공약을 통해 불교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전통문화 유지보존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무속논란으로 곤혹을 겪기도 했지만, 불교계와 인연은 남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시기



전통문화 공약 현실화에 '주목'
불자는 아니나 불교 인연 많아
대학시절 중광 스님 만나 친분
나눔의집 문제 관련 소신발언

사찰에서 공부에 매진한 경험을 종종 밝혀 주목받았다. 1980년대 서울대 법대에 재학 당시 모의재판에서 전두환 前 대통령에게 5 · 18 광주민주화운동 탄압혐의로 사형을 구형한 후 강원도로 피신했을 때 故 중광 스님과 인연을 맺은 에피소드도 회자된다.

특히 지난 2021년 9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예방 당시 "20대 시절 중광 스님과 함께 낙산사와 신흥사, 백담사 등을 순례했다"며 "또한 어머니 등 외가가 신심깊은 불자라 어린 시절 강릉 외가에서 지내며 친척들과 사찰에 많이 다녔다"고 불교와의 인연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원행 스님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도 꽃을 피운다'는 처염상정의 가르침을 내리며 "원칙과 중도를 지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10월경 통도사 상월선원 만행결사 회향식에 참석한 당시에도 "젊은 시절 중광 스님과 함께 낙산사와 신흥사, 백담사까지 많은 사찰을 순례했다"며 재차 인연을 강조한 데 이어 "힘들 때마다 개인적인 일보다는 부처님 생각하시는 법대로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곤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올 1월에는 불교리더스포럼에 참석해 화쟁의 가르침을 언급했다. 당시 그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신년사를 인용해 "불이와 화쟁정신의 가르침은 우리 국민 모두가 코로나 위기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시점에 더욱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온다"며 "이 같은 가르침을 새겨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오랜 세월 종교를 넘어 우리민족의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에 힘써주신 불교계에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나눔의집 사태로 인한 논란 속에서 경기도의 과도한 행정처분을 질타하는 소신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나눔의집 설립주역인 대표이사 월주 스님의 갑작스런 원적 이후 영결식 조문에 이어 기자들과 만나 "월주 큰스님의 입적에 영향을 미친 나눔의집 사태는 경기도의 인격 말살적 공격이라고 본다"고 작심발언했다. 이는 나눔의집 이사 스님들에 대한 검 ·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경기도가 해임 명령을 강행한 데 대한 행정적 부당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주목됐다.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불교계 관심은 공약의 현실화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통문화 보존 정책 및 종교편향 예방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공통범주의 공약을 발표했지만, 입법안 상정 등을 통해 의지를 드러낸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현실화 노력은 다소 부진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아 공약 실현 여부에 불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상월결사 '평화' 주제 교구본사 순례 진행

상월결사(회주 자승)가 3월 23일 해남 대흥사 순례를 시작으로 '평화'를 주제로 한 교구 순회 순례를 진행한다.

상월결사는 3월 10일 동국대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월 23일 대흥사 평화발원 걷기순례, 4월 27일 월정사 생명평화 걷기순례, 5월 25일 백양사 평화발원 걷기순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상월선원 만행결사 총도감 호산 스님, 지객 원명 스님, 월정사 중앙종회의원 설암 스님, 대흥사 중앙종회의원 설도 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호산 스님은 "평화라는 주제로 순례를 진행하는 것은 2019년 천막결사에서 4대결사 발원으로 수행정진결사, 불교중흥결사, 대한민국화합결사, 세계평화결사를 밝힌 것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화발원 순례는 묵언 행선을 기본으로 해당 사찰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점심공양을 비롯해 개인물품 지참 하에 진행된다.

호산 스님은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없듯이 힘센 나라와 약한 나라가 있어서도 안 된다는 회주 자승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평화순례를 이어가고자 한다"며 "상월결사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람과 세상의 어떠한 차별에도 반대하며, 순례를 통해 이 가르침을 서원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3월 23일 대흥사 시작해
4월 월정사, 5월 백양사
4대 결사 발원 일환으로
묵언 행선으로 평화기원

3월 대흥사, 4월 월정사 평화순례 시 각각 실무를 맡은 설도, 설암 스님은 이번 순례의 의미를 재차 강조하며 기대를 전했다.

대흥사 설도 스님은 "상월결사가 3년을 넘어 4년차에 들어서고 있다. 대흥사는 가장 빨리 봄이 찾아오는 곳으로 전쟁으로 고통받고 차별로 소외받는 이들이 줄어들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평화순례를 처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대흥사 구곡구교를 건너는 길은 '장춘길'로 불린다. 대흥사의 기운을 받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정사 설암 스님은 "이번 상월결사는 단순하게 우리 불교 내부 행사, 걷기순례라는 지엽된 사고에서 벗어나서 부처님의 평등과 자유사상을 화쟁으로 전환하고 사회에 평등자애사상을 펼치기 위한 것"이라며 "오대산 선재길은 선재동자 구법기를 바탕으로 옛길을 복원한 것이다. 우크라이나사태, 미얀마사태 등 세계의 분쟁이 중단되고 평화와 희망을 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월결사는 하반기에는 사찰 등과 협의하여 새로운 기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백만원력 결집불사
위례신도시
상월선원 신축불사

아홉스님의 석 달 동안의 동안거 상월선원 천막결사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불교 중흥과 나라와 국민의 평안, 나아가 온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상월선원 신축불사를 추진합니다. 봉은사의 위례 신도시 상월선원 건립불사는 상월결사의 정신을 담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발원으로 시작된 백만원력 결집불사와 함께 우리 불자 한명 한명의 원력을 모아 한국불교의 내일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상월선원 신축불사 모연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상월선원 전체 불사 모연



전체 불사 : 1인 100만원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5-099939
농 협 301-0299-2142-01
국민은행 401301-04-080435
예 금 주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문의/안내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02)3218-4811 / 4837

홈페이지 http://www.bongeunsa.org

상월선원 대웅전 불사 모연





구 분	수 량	동참금
상량보	1개	2억원
대들보	18개	1억원(개당)
기둥	18개	5천만원(개당)
도리	77개	2천만원(개당)
주춧돌	18개	5백만원(개당)
서까래	236개	1백만원(개당)
기타		십시일반

구 분	내 용	가족모연(금판)		개인모연(은판)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불상	삼존불(석가모니불) 및 좌대	5명	3억원	200명	100만원	500명	10만원
	삼존불(약사여래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삼존불(아미타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관세음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지장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구 분	내 용	가족모연		개인모연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탱화	후불탱화 삼세불도	10명	1억원	200명	50만원	200명	10만원
	신중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감로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봉은사 BONG EUN SA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 (삼성동 73번지)